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 모교60년사 편찬사업 재점화 3월29일 제43차 정기총회

### 안강태 본부 회장 2006년 운영방향 밝혀

한동안 추진이 소강국면을 맞았던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이 다시 활로를 찾게 되었다. 이는 본부동창회 제43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새로 선출됨과 동시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본부 회장은 지난 1월20일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411호 본부회관 사무실에서 올해 동창회 운영방향을 밝힌 가운데 "그간 막대한 예산조성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은 오는 3월29일 열리는 본부 제43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임기 중에 이를 달성하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은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조성에 앞장서고 각 동교회·국내외 지역동창회·직능회 등이 일제히 협

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이 이날 밝힌 '본부 2006년 운영방향'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모교 학업·체육진흥을 위한 용마장학회 예·결산이사회를 비롯해 고문-회장단 회의, 본부 예·결산 이사회( '06년 제1차 이사회), 제43차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고 홈커밍데이행사·기별대항 바둑 및 테니스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고문-회장단회의를 비롯해 용마장학회 이사회, 본부 이사회 등을 열고 기별대항 골프·야구·낚시·등반대회와 용마의 밤을 추진한다.

<2면에 관련 표>



본부동창회 정기총회는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방향과 용마가족들의 유대 강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광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새해축화  
**봄**  
 봄이 오니 매화 피나 매화 피니 봄이 오나  
 봄이야 오든말든 매화야 지든말든  
 우리모두 인생의 봄 다시 한번 맞이하게  
 2006 원단 동원 권정혁 (14회)

### 김대현 (18회) 대한의협 회장 선거 출마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부산시의사회 회장인 김대현 동문(18회·사진)은 지난 1월5일 저녁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교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지(初志)를 재확인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김 동문은 동기

회 회장과 본부동창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용마 가족 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앞장섰다.  
 평소 의사협회와 의사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하고, 국민의료와 건강 영역을 확대하며, 의협의 구조·기능 개혁과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을 강조해왔다.

### 권철현 (19회) 한나라당 부산시장후보경선 출마



국회의원인 권철현 동문(19회·본부 부회장·사진)은 오는 5월31일 치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한나라당 부산시장후보경선 출마 뜻을 밝혔다.  
 3선 의원인 권 동문은 지난 1월17일 오

전 10시 부산 용두산공원 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공식 선언했다. 권 동문은 동기회장을 지냈고 지난 19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본부 부회장을 맡아 용마가족의 유대 증진과 조직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모교와 동창회의 각종 행사에 본부 임원으로 적극 참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06년 경남중·고 제28회 동기회 임원명단

고 문	강현안	김형진	이만재	김상정	윤명수	최원배	지역동기회
	강용수	양종명	이원용	김양태	윤명현	최태열	
	이원철	이경포	이인재	김원홍	이관선	한기웅	총무 김성규
	엄호성	임재덕	정운현	김용희	이대식	한봉철	울산동기회장 최성덕
회 장	김준배	탁충배	조광제	김이청	이민우		총무 겸임
수석부회장	김용진	권수원	최강호	김태완	이인수		마창동기회장 정영주
부 회장	김정유	김만중	허영철	박병준	이용일	동 호 회	총무 정해영
	어청우	김명영	권혁우	박영규	이재원	산우회회장 이원철	
	윤경섭	김용원	김관세	배정환	이하백	총무 김치운	본부동창회
	이승하 (기존)	노영현	김대성	백영호	전병철	골우회회장 김용원	이 사 강용수
	구영소	배철영	김대운	안영태	정근재	총무 김명영	김현안
	김영철	서영대	김동수	옥상곤	정성욱	기우회회장 권수원	김준배
	김영학	엄재홍	김명준	옥준원	정현수	총무 김성희	이만수
	김준연	우건식	김병철	유태환	최연욱		조광제
	김창준	이만수	김부운	윤덕승	최용석		

신년사

안강태

제11회·본부동창회 회장·대선조선(주) 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마가족 여러분. 병술(丙戌) 새해 365일 하루하루가 행운으로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정치가 청명하고 경제 또한 쾌주해야 하는데, 약속이나 한 듯 돌 다 엇박자를 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분위기가 온기를 느낄 수 없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슴마다 간직한 희망을 등불로 밝혀 힘든 고비를 넘고 정체(停滯)의 터널을 탈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인식과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전제로 하는 혁신(REFORM)으로 가능합니다.

혁신은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topic of conversation)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력소인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조직일 경우 구성원의 창의성·역량성과 실천력·팀워크를 골간(骨幹)으로 하여 이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창회보 신년호(4~5면)에 게재된 '새해 소망' 제하의 의견들을 용마가족의 '집약된 의견'으로 인식합니다. 큰 흐름은, 집행부의 활성화와 사무국의 분발을 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시대감각에 맞게 운영을 쇄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내실화를 도모하는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일체감 조성을 위한 활성화정책을 더욱 개발할 것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무기력 탈출을

소중한 의견들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이 무기력해지면 냉혹한 경쟁세계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부동창회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의 지혜를 결집해 이러한 의견들이 가시화되게끔 열정을 바칠 각오입니다.

이의 첫 걸음으로, 그간 막대한 예산문제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모교와 동창회의 자존심인 이 사업은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앞장 서고 각 동기회·국내외 지역회·직능회 등이 적극 동참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이뤄낼 것 입니다.

'새해 소망'에서 어느 동문은 '동창회는 동문 간 공동놀이 터다. (중략)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옳다 그르다는 요구사항만 많고 떠들썩한 사람이 많으면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곧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진취적 의지를 결집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조직이 요구하는 혁신(REFORM)은 '경쟁(Race)·활력(Energie)·미래(Future)·독창성(Originality)·신뢰(Reliance)·최상(Maximum)'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추구할 때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동창사회에서도 이 같은 집념이 불타오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마가족 여러분. 우리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든 형제들입니다. 지금 누구를 탓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두들 긴 잠에서 깨어나 뭉쳐 다시 일어섭시다! 언제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본부동창회 운영방향

구분	제 목	일 정	상 소	내 용
상반기	용마정학회 이사회	2월 7일 (화)	대어초밥	'05결산·'06예산안 승인
	고문·회장단 회의	2월 16일 (목)	대어초밥	주요 회무·형사 보고 등
	본부 이사회(1차)	2월 27일 (월)	코모도호텔	제44차 정기총회 일정 승인·예-결산안 심의·차기회장 추대
	모교 졸업식	2월 20일~21일	학교 체육관	경남고 2/20·경남중 2/21
	모교 입학식	3월 초순	학교 운동장	
	제43차 정기총회	3월 29일 (수)	코모도호텔	예-결산안 승인·회장 선출 등
	모교 개교 기념일	4월 30일	학교 운동장	경남중·고 각각 기념행사 (우천시 체육관)
	츨켜미데이 축제	4월 하순부터	모교 등	제40·30·20·10회 준비 박차
	기별테니스대회	5월 중순	부산대 코트	제9~48회 출전
	기별바둑대회(단체전)	5월 하순	중앙기원	제1~48회 출전
하반기	본부 이사회(2차)	6월 초순	코모도호텔	집행부 상건례·하반기 운영방향 논의
	기별야구대회	6월 중순	남해인갯바위	제 5-48회 출전
	기별야구대회 대표자회의	8월 중순	추후 발표	본부 기별야구대회 계획안 승인
	기별야구대회	9월 초순~9월 하순	모교 운동장	연합팀, 제19회 이후 단일팀 출전
	기별골프대회	10월 중순	부산CC	제1~48회 출전
	기별바둑대회(개인전)	11월 중순	중앙기원	제1~48회 출전
	본부 이사회(3차)	11월 중순	코모도호텔	용마의 밤 계획안 승인
	용마 등산대회	11월 하순	근교산	제1~48회 동문·가족 참여
	용마의 밤	12월 8일 (금)	롯데호텔	전국 동문 참석

백혈병 용마 구하기 헌혈증서수집운동 확산

변용현(16회) 구명 위해 선·후배들도 동참

'백혈병 동문 생명을 헌혈증서로 구하자!' 몇 달째 백혈병과 투병하고 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범동기회 차원을 넘어 선-후배 동기회로 점차 확산, 부산-서울 용마가족의 마음과 마음으로 불결치고 있다.

제16회동기회는 혈소판이 부족해 수혈을 지속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변용현 동문을 구명하려고 헌혈증서모이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동기생들이 모아 변 동문의 가족에게 전달한 헌혈증서는 50여 장에 이른다.

이맹립 본부동기회장과 이상철 재경회장이 앞장서고 있는 이 운동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 동기생들은 물론 선-후배 동문들도 다수가 동참하는 등 참여도가 날

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헌혈증서모이기운동은, 서울대병원 측이 한 사람에게 계속 수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헌혈증서를 많이 모아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간청에 따른 것.

이맹립 본부동기회 회장은 "용마가족들의 조그마한 사랑은 사경을 헤매는 변 동문에게 희망의 햇살로 밝혀지고 용기를 심어준다"며 용마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지들 헌혈증서도 소중한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철 재경동기회장은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변 동문은 평소 친구를 가리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누구 못지 않게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해왔다"며 "이 같은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동기생들이 발벗고 나서서 헌혈증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변 동문은 동기회 회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송정여름캠프단장을 20년째 맡는 등 그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특히 그는 연세대 재학 중 야구 국가대표후보로 활약했고 튼실한 내야수비와 날카로운 타격이 돋보였다. 전통의 동창회장기 쟁탈 기별대항야구대회에서 3연패의 견인차로 활약, 동기회가 황금용마기를 영구보존하게끔 업적을 쌓았다.

※연락처 = 부산동기회:부산 중구 중앙동 49-13 부산빌딩 201호(우편번호 600-012). 전화:051-248-0016. 강중국 사무국장:011-9531-2827. 서울동기회 손재봉 총무:018-893-6918. 변용현 동문 부인:019-549-4697.



'누리마루' 부산 최고 건축물로 설계한 이용흠(19회) '05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누리마루 에이팩 하우스'를 부산 최고의 건축물로 각광받게 한 이용흠 동문(19회·본부 부회장·일신설계건축사사무소 회장)이 최근 '05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했다.

부산 해운대의 동백섬에 세워진 누리마루 에이팩 하우스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2차 정상회의가 열려 지구촌의 시선을 집중시킨 곳이다.

누리마루의 누리는 '온 세계'를, 마루는 '정상, 꼭대기'를 뜻하는데, 지상 3층 규모인 이곳(1층 기계실·2층 연회실·3층 회의장)은 이름 그대로 '세계 정상'의 에이팩 회의장 임을 상징한다. 이 동문은 "전통미와 현대미, 해변의 송림, 바다 등 주변의 자

연 환경과 잘 조화된 누리마루 에이팩하우스는 '부산다운 건축물'의 결정체이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우회 창립

제28회, 초대회장 권수원

제28회동기회 온라인기우회가 최근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회장에 권수원, 총무에 김성희 동문을 각각 선임하고 지난 1월8일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대국을 펼쳤다.

앞으로 바둑을 즐기는 동문들은 부산과 서울을 비롯해 창원 마산 진주 울산 대구 대전 청주 인천 수원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수담을 나눌 수 있다.

연간 한 사람이 48국을 둘 수 있는데, 개인전·단체전·리그전 등에서 대국 상대를 결정한다.

각 클럽 새해 첫 수업 '철반의 열정'으로 출발

경원회 각 클럽의 올해 첫 수업이 1월 중 열렸는데, 9개 클럽 가운데 일금회 등 5개 반만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일금회(회장 손정-신임)는 설날을 코앞에 둔 27일 오후 6시 일산주요역 근처 마라도에서, 강남회(회장 김해룡-유임)는 24일 오후 12시30분 서초기뻐집순두부에서 새해 축하를 들었다.

또 분당회(회장 김연수-신임)는 21일 오후 6시 서현역 기뻐집순두부에서, 안산회(회장 윤영태-신임)는 10일 오후 12시30분 산본역 이랜드 맞은편 순두부마을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유임)는 3일 오후 12시30분 평래역에서 각각 신년회를 곁했다.

한편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영덕-신임)·등산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유임)·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정상수-신임)·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유임)는 '날씨가 춥다'는 핑계로 1~2월 휴강 선언.

일소회 각 클럽 정기총회

제15회동기회 각 클럽은 '05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화목을 다짐했다.

의약회 신입회장 장수웅

의약회는 구랍 15일 오후 7시 서면 부산초밥에서 유경수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를 개최, 장수웅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권승부 동문을 총무로 선임했다.

가람회는 10일 오후 7시 서면 포항돼지국밥집에서 김항영 회장 주재로, 이화회는 6일 오후 6시30분 동래의 중화요리집 아방궁에서 박재준 회장 주재로 각각 송년회를 열었다.

제16회 재경회장 이상철

제16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6일 오후 6시30분 동기회 사무실에서 '06정기총회를 열고 이상철 (<주>원지 대표이사)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민신웅 회장(재경동창회 사무국장)이 주재한 총회는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을 개설했다(사회 손재봉 총무·유임).

이상철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 간 유대 증진을 통해 재미있고 활력 넘치는 동기회로 발전되게끔 동기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하여 달라"고 말했다.

# 제9회서 세운 모교 교훈비 제막

### 졸업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헌정... 자긍심 드높여



제9회동기회가 건립해 모교에 헌정한 교훈비 (위) 앞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교훈비 뒤쪽에 새겨진 옛 교훈.

‘근검 자립하자. 규율을 지켜 자유롭게 살자. 책임을 다해 열려 살자.’

용마가족의 정신적 지주(支柱)인 모교 교훈. 이를 제9회동기회가 졸업50주년 기념사업으로 웅장한 오석(烏石)에 새긴 교훈비(校訓碑)로 재현, 헌정(獻呈)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가슴마다 높은 기상과 크나큰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제9회의 이 같은 모교 사랑의 쾌거는 그 뜻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구랍 21일 오후 2시 경남고 교정.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주치는 연못가 옆에서 이 같은 교훈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제막식에는 권명미 교장 등 관계 교직원과 재학생 대표, 건립비를 쾌척한 제9회를 대표한 한동대 부산회·허남수 재경회 회장장과 비문을 쓴 황영선(변호사)·김병희 동문(재경동창회 고문), 김병수(22회) 본부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워진 교훈비는 앞면에 지금의 교훈을, 뒷면에 옛 교훈인 ‘생각하고 創造하세. 誠實히 責任 다하세. 끈기있게 生氣있게’를 새겨 놓았다. 이 교훈비는 기단석(밑면 가로 200cm·세로 150cm·높이 120cm)과 교훈이 새겨진 자연석(밑면 가로 460cm 세로 100cm·높이 160cm)으로 구

성되어 있다. 충청도에서 캐온 오석(烏石)에다 황영선 동문이 심혈을 쏟아 한글은 훈민정음 고체로, 한자는 광개토태왕 비문의 서체로 쓴 글씨를 새겼다.

모교 교훈은 안용백 초대 교장이 교훈비 뒷면에 새겨진 내용으로 처음 제정, 제9회까지 사용되었다. 이후 제10회부터는 추월영 교장이 두 번째로 내용을 고쳐 ‘근검 자립하자. 사랑하고 봉사하자. 규율을 지켜 자유롭게 살자. 책임을 다해 열려 살자’로 모두 한글화해 1971년 2월까지 사용되었다.

이어 같은 해 3월 즉 제25회동기회 때 박경원 교장이 쓰고 있던 교훈 중 ‘사랑하고 봉사하자’를 뺐으로써 세 번째 개정을 단행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졸업50돌 홈커밍축제 준비체제 돌입

### 제10회 동기회 정기총회... 신입회장 김선동 선임



제10회동기회가 올해 치러질 졸업 50주년기념 홈커밍 데이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비해 새 집행부와 행사추진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켰다.

구랍 21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 사무실에서 김상국 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총회는 임원 개선을 통해 10년 전 동기회 사령탑을 맡은 바 있는 김선동 동문(부산시교육위원·사진)을 새 회장으로, 이재순·이의도 동문을 각각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홈커밍행사 추진위원회에 조길수, 기념문집 편찬위원회에 장명재 동문을 각각 발탁했다. 김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내년에는 동기생들이 교회(古稀)를

맞게 되고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도 치르는 경사가 겹치기 때문에 활기차고 즐거운 동기회를 만드는 데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송년 잔치가 열려 소줏잔 속에 정담을 띄우며 “어쨌든 건강이 최고이니 몸 관리 잘해라”는 격려의 말이 이 무성했다.

### 경열회 신입회장 정인호

경열회(재경제10회)는 구랍 10일 오후 6시30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정인호(효성 부사장·사진), 수석부회장에 조정만, 총무부회장에 이병철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성 은 회장이 주재한 이날 정기총회는 부부동반 42명(부인 6명



포함)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 한 후 임원을 개선했고 강북화요회 등 9개 클럽 새 회장을 인준했다.

### 각클럽 회장인준속 축하박수

이어 각 클럽 회장으로 선임된 강재환(강북) 김해룡(강남) 윤영태(안산) 김연수(분당) 손정(일금) 이계창(사니조아) 정상수(정우회) 이정배(경북회) 김영덕 동문(동수회)이 차례로 인사를 하고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송년잔치는 재치 넘치는 유티와 고품격 말씀씨를 자랑하는 황정조 동문이 사회를 맡아 객석을 시종 웃음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었다. 특히 강재환 윤대옥 추진영 정상수 동문의 일류 가수가 울고 갈 정도의 노래자랑, 신규대 동문의 ‘열차전투’ 장기자랑, 조수영 동문의 덕담 등은 즐거움 속에 묻히게 했다.

## 올해 지리산 등 11개 산 등정기로

### 본부 용마산악회 '06 정기총회... 신입회장 하영수(17회) 선임

본부 용마산악회 '06정기총회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진구 범천동 제일생명빌딩 23층 제일뷔페에서 열려 임원 개선을 통해 하영수(17회·한국치공구공업 대표이사·사진) 수석부회장을 신입회장으로 선임하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정준수 회장(15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각 동기회 산우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통과시키고 임원을 개선하는 등 주요의제를 의결했다.

하영수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용마산악회는 동문·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도가 날로 높아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감대를 본부동창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력소로 삼자’고 말했다.



총회는 임원 개선에 앞서 한동대(9회)·제병민 명예회장(13회)을 고문으로, 정준수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올해 산행은 지리산 등 11개 산을 오를 계획이다. △회장=하영수

본부 용마산악회 '06정기총회에서 회의록을 주재한 정준수 회장(오른쪽)이 하영수 신입회장(17회·왼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하며 조직 활성화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부회장=정영천(21회·수석) 김승재(22회)·박수갑(23회) △감사=이창흠(19회) △산행대장=신남석(21회)·부대장=오기목(23회) △총무=서민석(30회)·부총무=김법영(33회)

## “용마는 간다”

용  
마  
는  
간  
다



이재호

제21회 동기회장·본부 부회장·변호사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가 쓴 <용마(료마)는 간다>라는 소설은 자칫 역사의 뒀안길에 스러져 갈 뻔한 무명의 지사(志士)를 발굴하여 일본사 천년의 인물로 부각시킨 일본의 밀리언셀러이다. 일본인들은 공(功)을 이루고도 그 과실을 취하지 않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인물에서 민중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본 것이다.

경남중·고의 상징은 용마이다. 천마산과 용두산 좌우에 아우르고 아홉 덕을 품은 구덕산 자락에 자리잡은 경남중·고의 형국이 비상의 날을 기다리는 용마의 형상과 닮았기 때문인가. 구덕산이 함양해 온 용마인들의 성격적 특성은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오만하진 않는 점에 있다.

주역의 폐에 나타난 용의 변화와 현재 용마의 위상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10년 전 우리 용마는 ‘비룡재천(飛龍在天-나는 용이 하늘에 있고) 이견대인(利見大人-대인을 보면 이롭다)’ 형상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항룡유회(亢龍有悔-너무 높이가 올라 간 용은 뉘우침이 있다)라는 좌절의 시기가 있었고 다시 잠룡물용(潛龍勿用-물 속에 잠긴 용은 쓸 수가 없다)의 침체기를 거쳤다.

그러나 용은 물 속에만 있을 수 없고 한 번 용트림을 하여 대지로 나와야 한다. 현재는 현룡재천(見龍在田-용이 밭에 있으니) 이견대인(利見大人-대인을 보면 이롭다)의 시기인 것 같다. 다시 땅에서 날아 흑약재연(或躍在淵-때로 연못에서 뛰어놀기도 한다)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용마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과거 기라성 같은 인재를 배출한 모교는 평준화 이후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는 부산 경제의 추락, 작게는 동부산보다 낙후된 서부산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때 해운대로 학교를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많은 용마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구덕산록을 떠나 아 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지로 용마의 산실을 옮기는 것은 용마의 특성상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권의 개발에 있다면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여 서부산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젠 명문대학 합격자 숫자가 중요시되던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할 유능하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용마만이 갖는 고유한 학풍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서부산을 포괄하는 ‘학군의 광역화’에 동문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용마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밭에 있는 용은 대인을 보아야 이롭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병술년 새해 모든 용마들이 ‘용마는 간다’는 진취적 자세로 다시 한 번 시작할 것을 높게 다짐하자!

용마가족 성원에 모교 육성 가속화

**김철근** 동창회의 후원과 동문들의 성원이 모교 육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자양분 덕택으로 본교는 지난해 독서유공학교로 표창을 받았다. 야구부는 전국체전 입상과 롯데기 4년 연속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기독교문 모임인 신우회에서 결식 학생 돕기에 많은 성금을 기탁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 '크나 큰 이름받는 경남중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 16회 · 경남중 교장>

경영전략 세워 비전 제시하도록

**권오균** 운영공동체로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동창회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수업이 불확실한 임원, 이사 연회비와 특찬금 등에만 계속 의존하는 구태를 벗어나 수익사업 차원의 대안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부 사무국은 경영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동창회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향을 수시로 밝혀주기 바란다.

<제 21회 · 경총회 회장>

설득 · 포용력으로 공동놀이터 돼야

**이서희** 동창회는 동문 간의 공동 놀이터다. 숨어서 조용히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 많은 동창회는 뿌리가 깊어 내려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욱 활달될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옳다 그르다는 요구사항만 많고 떠들썩한 사람이 많으면 균열이 생길 것이다. 동창회는 누가 이익을 주고 누가 불이익을 주는가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므로 서로 이해와 설득으로 포용력있게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제 22회 · 미국 남가주지역 동창회장>

서로 낮추고 사랑하고 어울리자!

**박흥조** 새해 첫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일출의 장엄미를 보여준다는 간절곶. 이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울산지역 400여 동문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올해는 모든 용마 가족들이 서로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나누고 보충해 사랑과 정의의 문화를 창조하자. 그리고 이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참여하는 동창회, 재미있는 동창회, 보람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낮추고, 사랑하고, 어울리자! 다시 영광을 위해 자존심을 갖고 다시 뛰자!

<제 22회 · 울산회장 · 본부 부회장>

22명에 용마장학금 지급

경남고 2~3년 학업우수자

안강태(11회)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장은 최근 열린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남고 '05학년도 용마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장학생은 2학년 1~10반 10명과 3학년 1~12반 12명 등 모두 22명이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학년=한성민 박상우 김민성 오영재 문희섭 최문석 이도행 이 훈 엄지호 문오한(이상 1반~10반 순). △3학년=김동환 손일호 김재현 임명규 박상민 김승호 최홍석 김수웅 이민찬 최원준 김한뜻 김동준(이상 1반~12반 순).

병술 새해 덕담 무성 제8회 신입회장 안종열

제8회동기회는 지난 1월 9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옛 세종예식장 1층 송옥회초밥에서 '06정기총회를 열어 새해 덕담이 무성한 가운데 임원을 개설했다. 안종열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우동천 동문을 신입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문 국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임원 개설했다. 의제를 의결했다.

김 청(9회) 통일기원 문화축제 열어

김 청 동문(9회 ·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북5도 부의장 · 사진)은 구랍 21일 서울에서 열린 이북5도 자문위원 통일기원 문화축제를 주도했다. 이날 행사는 이산가족 상봉 현황 설명에 이어 탈북자 예술단인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한국의국어대 학교법인 이사과 청원이화학(주) 회장을 맡고 있다.

제23회 새 집행부 구성 신입회장 전영조 선임

제23회동기회는 구랍 23일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 연회실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전영조 동문(남일회계법인 대표이사 · 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박문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정기총회는 48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고, 이어 송년잔치를 펼쳤다.

제24회 새 회장 안상수

제24회동기회는 구랍 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빌딩 크리스탈뷔페 별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 안상수 동문(신우회계법인 회계사 · 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승국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송년잔치가 열정의 한마당을 이뤘다.

강현안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2명이 참석, 예-결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개설했다. 한편 총회에 이어 송년잔치가 벌어졌다.

통영회 표광민 회장(29회) 유임

통영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30분 경남 통영시내 안채식당에서 '06정기총회를 열어 표광민 회장(29회 · 표광민내과의원장 · 사진)을 유임시켰다. 표광민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고문=황성남(3회 · 재추대) △회장=표광민 △부회장=최상웅(30회 · 신입) · 김우신(35회 · 유임) △감사=김광철(27회 · 유임) △총무=김기산(33회 · 유임)

제28회 새 회장 김준배

제28회동기회는 구랍 8일 부산진구 범일동 하모니웨딩홀 연회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김준배 동문(김준배치과의원장 · 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제15회동기회 송년잔치

제15회동기회는 구랍 12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룸에서 '05송년잔치를 벌였다(사진). 김경일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부부동반 90여 명이 참석, 기념식과 버라이어티쇼로 우정을 확인했다. 최원수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포도주+칩+스크류)과 한해수 동문(양과자)이 특찬한 선물, 동기회가 마련한 기념품과 '06 캘린더 등을 받았다.

일오산우회 새 회장 이동근 금정산서 제237차 산행대회

일오산우회는 구랍 18일 영하10도의 혹한이 몰아친 금정산에서 유년 남회산행을 겸한 제237차 산행대회(대장 정수방)를 연 후 정기총회를 통해 이동근 총무(사진)를 신입회장으로 선출,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김형영 회장이 주재한 정기총회는 17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정창용 동문을 총무로 임명했고, 1년 동안 개근한 임상택 동문은 기념품을 받았다.

**제 4 회**  
朴載仲=전 육군 치무감. 지난해 12월10일 별세

**제 6 회**  
姜東淑=1월14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아들 성식군 결혼. 051-202-2220

**제 7 회**  
金榮斗=지난해 12월24일 별세  
朴永喆=1월12일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별세

**제 8 회**  
余永互=단국대 천안병원에서 제주한라병원 산부인과로 옮김  
박희옥=(주택 이사)40년간의 의업을 마치고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0 한양아파트 605동 702호. 016-937-8870  
曩柱元=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25번지 신성미스타 1201호. 02-444-3232  
李圭殷=전 경향신문 상무. 지난해 12월19일 별세  
張赫杓=전 부산대총장. 1월 18일 부산시 복지개발원 초대 이사장 취임. 051-465-8110

어디서 무엇을

**제 9 회**  
姜在華=강제 화산부인과 의원장. 지난해 12월1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아들 결혼

**제 10 회**  
權寧助=그린소아과의원장.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센타프라자. 031-

266-1109  
金棟坤=(휴대폰 변경)010-4583-8658

**제 11 회**  
李均佑=지난해 11월26일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장녀 결혼

**제 12 회**  
金起秀=지난해 9월초 서울에서 범우합동법률사무소 개업. 서울고대 후문 건너편 흥인빌딩 3층에 위치  
金千洙=지난해 10월15일 모친 별세  
白應權=지난해 11월26일

서울 MBC 옆 성당에서 장녀 결혼  
李鳳梧=지난해 11월13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차남 결혼  
林成森=지난해 12월3일 고향 통영에서 에이원치과의원 개원  
任宇英=지난해 10월23일 서울 용산국방회관에서 장남 결혼

**제 13 회**  
金勝彦=2월18일 부산 국민연금공단 3층에서 아들 결혼  
車英一=2월18일 부산중앙

'전설 속 모교' 안되게 방향전환을



김구화 10년 전만 해도 모교에 근무했던 많은 교사들은 '다시 한번 더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현실과 먼 이야기가 되었고, '자랑스런 학교인'이라는 자긍심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 최근 2-3년 사이 모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용마가족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것은 야구부인데, 후원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느껴진다. 합숙훈련을 하려 해도 제대로 된 숙소도 없는 등 여건이 열악하다. 동창회의 대안을 기대한다.

<제 25회 · 경남고 교사>

일반회비 규모 마련해 재원 충당을



김대욱 동창회는 동문들 간에 확실한 교류의 길을 열어 선. 후배 모두가 어울리는 마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건없는 참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참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창회 운영 재원을 위해 회장님과 이사 외에 일반 회비를 책정하고, 동창회에 사회보장적 접근을 하고 총명부도 조기발간하기를 바란다. 특히 글로벌 IT시대에 걸맞는 동창회 홈페이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 28회 회장 · 본부 부회장>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지요



김은옥 남편은 술을 마시다가도 동창회 일이 되면 당장 뛰어 나간다. 자칭 동창회의 '숨은 일꾼' 이란다. 나도 이것만은 인정한다. 동문 대다수가 동창회 발전책을 뜨겁게 제기하고 행사 참여에 적극적임을 본다. 본부 사무국은 동창회 발전에 숨은 공이 있는 동문 발굴에 적극성을 보이고, 개별 야구대회 등 각종 행사의 활성화와 동문 · 가족의 연대감 확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하지 않나?

<제 32회 황문찬 동문 부인>

선배 권위 · 후배 외면은 발전저해



임정훈 동창회의 발전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공경하는 가운데 가속화된다고 생각한다. 선배의 권위와 후배의 외면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후회할 줄을 것이다. 기수 격차가 너무 나서 화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배들이 후배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후배들은 이를 열심추진하면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제 4회 회장 · 세미당예식장 이사>

경수회 낚시 · 야구시합 FTV방영

야구 YB · 낚시 OB 승리... 네 차례 녹화 중계

본부 경수회(慶水會 · 낚시모임) 동문들이 이틀간에 펼친 낚시 · 야구시합을 낚시전문채널 FTV가 녹화중계(네 차례 방영), 화제를 모았다.

진경일 회장(20회 · 영신 대표이사)이 이끄는 경수회는 행사 둘째날인 지난 1월22일 오전 5시 경남 통영시 옥지면 연화도에서 시조회를 겸한 OB-YB 대항 개인전 단체전 낚시대회를 열었다.

낚시대회 개인전은 OB-YB 무승부(1~4라운드 2-2)로 기록했다. 단체전에서 강성도 선수가 맨 먼저 망상어를, 두번째 YB팀 김중엽 선수가 불락어를, 세번째 OB팀 김형수 선수가 망상어를 낚아 OB팀이 2-1 승리했다. 행사 첫날인 21일 경남고 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는 YB팀이 3-1로 역전 승했다.

이 경기는 각 팀 5명씩 공격에 나섰다. 수비는 모교 재학 선수(주심 전광렬 코치 · 44회)가 맡았다. 한편 경기에 앞서 권영미 교장의 학교 연혁, 모교 발전상, 졸업생 학창시절 회고(20회 한대수 · 포크송 가수) 등이 소개됐다. FTV는 이 같은 두 행사를 같은달 26일(목) 오후 11시 첫 방영에 이어 27일(금 · 08:00) · 28일(토 · 12:00) · 29일(일 · 19:00) 네 차례 연속 방영했다.

이번 FTV 프로그램에는 모교



인도네시아지역 동문 ·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고국에 있는 용마가족들에게 새해에 꼭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보내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도네시아 동문들 고국 용마가족들에게 신년 인사

인도네시아지역 동창회 박광용 회장(22회 · 봉제회사 대표)을 비롯한 용마가족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고국에 있는 용마가족들의 건승을 기원하다'는 축하메세지를 본부동창회에 보내왔다.

임중근 총무(25회)는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회의 송년회 소식 등도 알려주었다. 임 총무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회에는 최고참인 16회를 비롯, 41회까지 24명이 등

록되어 있다. 특히 구랍 17일에 열린 송년회 겸 송상현 동문(23회 · 코오롱 현 지법인 부사장) 환송회 분위기도 전해왔다. 송 동문은 현지에서 10여 년간 활약하면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다가 한국의 본사로 전임하게 되었는데 그의 동창애가 너무 뜨거워 역대 용마가족들의 석별의 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각 동기회 시산제 펼쳐 산행 돌입



제 12회 동기회 산우회들이 임광산에 올라 시산제를 올리며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 용마가족들의 건승, 무사산행을 기원하고 있다.

제 8, 12, 16회를 필두로 각 동기회 산우회가 시산제를 올리고 일제히 산행기지를 떠났다.

경팔산우회 금정산서 "야호!" 경팔산우회는 문 국 회장의 리더로 7일 금정산에서 시산제를 올린 데 이어 14일 황령산 · 21일 장산 · 28일 백양산을 각각 등정했다.

용마원투산우회 임광산에

용마원투산우회(제 12회 등산모임)는 지난 1월22일 임광산(504m) 헬기장에서 '06시산제를 올리고 새해 첫 산행대회를 펼쳤다.

임태섭 회장이 총괄하고 정현대 총무가 산행대장을 맡은 이날 등반에는 가족동반 18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지하철 동대신 동역을 출발한 일행은 모교(경남고) 정문 앞~구덕골 옥천샘~대신공원 체육광장을 거쳐 업광산 동쪽 밑 헬기장에 도착한 후 정 총무가 마련한 제수를 놓고 시산제를 올렸다.

일행은 막걸리 한 잔씩을 음복한 후 꽃동네로 내려와 산마루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단합회를 열었다.

수령산서 무사산행 기원

일육산우회 새 회장 정우광

일육산우회는 지난 1월15일 기장 수령산에서 시산제를 올리고 새해 첫 산행대회를 끝냈다.

한편 산우회는 구랍 18일 금정산에서 남회산행을 한 후 만덕먹골촌의 청양가든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신입회장 정우광, 부회장 서고명, 감사 박영수, 산행대장 서태복, 총무 최정일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미륵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에는 19명(부인 4명 포함)이 참가했다.

일육기우회 새 회장 김정균

일육기우회 집행부가 새로 구성돼 동기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정균 동문이 사령탑에 올랐다.

기우회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사무실에서 '06정기총회를 개최, 동기회 회장을 역임한 김정균 동문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고문에 강원경 김한선 박종봉 오세규, 감사에 이명수, 총무에 직전회장인 이채연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4면에서 받음>

성당에서 아들 결혼 허준석=1월28일 별세

제 14 회

- 姜輝柱 =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국방회관에서 장남 석인군 결혼
朴 實 = 2월10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예식부에서 장남 가위군 결혼.
李桓均 = 1월 20일 서울 KOEX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차남 상훈군 결혼.

제 15 회

- 金東辰 = 지난해 10월12일 별세
金三坤 =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천주교 역삼동성당에서 딸 주연양 결혼
金祥泰 = 지난해 12월11일 모친 별세
申二述 = 1월7일 마산 리베라호텔 2층 엔젤홀에서 장녀 진영양 결혼
朱祥鶴 = 1월1일 부산 파크웨딩홀 17층 베르사유홀에서 장녀 현지양 결혼
許宗惠 = 1월22일 LA에서 아들 윤철군 결혼
黃建世 = 지난해 11월25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예식

어디서 무엇을

홀에서 차남 도현군 결혼 黃春植 = (자택 이사)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삼창파크타운 103동 105호

제 16 회

- 姜大燦 = 지난해 12월23일 김해복음병원에서 뇌졸중으로 별세
金茂正 = 미국에서 공인회계(CPA) 및 공인종합재정

설계(CFP)와 투자관리. 847-808-8671

- 金永一 = 지난해 11월23일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딸 결혼
文亨植 = 지난해 12월28일 장녀 경남양 결혼
朴 弘 = 지난해 12월30일 모친 별세
朴正棋 = 지난해 10월29일 서울 분당 서현아이원웨딩홀에서 장녀 결혼
朴敏弘 = 박민홍외과원장. 1월17일 간암으로 별세
이경제 = 지난해 12월3일 서울 동대문운동장 맞은편 밀리오레에서 장남 결혼
李相濟 = 지난해 12월3일 서울 오금동 천주교교회에

서 장녀 결혼

- 李昭雄 =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천주교 잠원성당에서 장남 결혼
全道奉 = 지난해 12월3일 서울 안암동 영암교회에서 장남 결혼
鄭信克 = (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48 경남선경아파트 115동 1201호
韓一郎 = 대한상사 대표. 1월 19일 모친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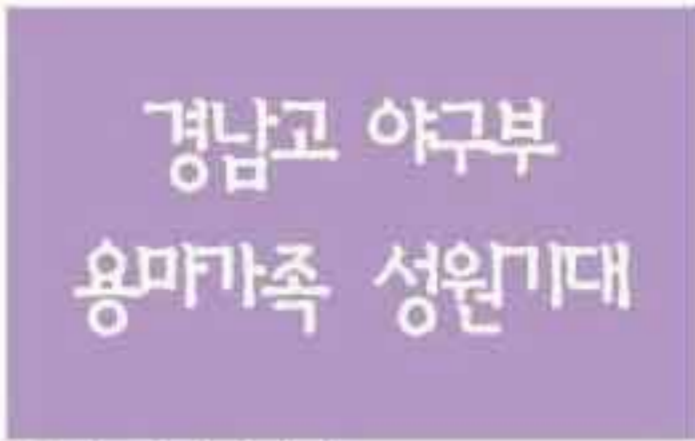
제 17 회

金淵臺 = 순천향대학병원장 임기종료 후 현재 동대학

<6면에 계속>

# '전국최강' 재현 위해 67일간 지옥훈련

'다시 왕중왕 영광을!'  
경남고는 대통령배·청룡기·봉황대기·화랑대기·황금사자기 등 전국대회를 석권하기 위해 혹한을 물리치며 강화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중운 감독(39회)이 이끄는 야구부의 이번 강훈은 지난해 11월 1일 실전훈련을 시작으로 돌입, 2월1~6일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전지훈련을 끝으로 총 5단계 67



일간 대장정이다.  
강훈일정표에 따르면, 제1단계 훈련( '05.11.1~13)은 실전을 능가하는 연습경기과 기술훈련을 통

해 개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2단계( '05.11.14~30)는 실전 및 분야별 수비(투수 포함) 기술 훈련, 3단계( '05.12.1~30)는 합숙훈련을 통해 기술 습득·체력 강화, 4단계( '06.1월 중)는 체력 및 실전 훈련을, 제5단계는 남해 전지훈련으로 마무리한다.  
야간훈련도 강행하고 있는 이번 강훈에 용마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뜨거운 성원을 기대한다.

## 모교 '투수3총사' 이재곤 이상화 김대건 올해 고교야구 최대 유망주 각광

'올해 첫 전국대회인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에서부터 우승기를 부산에 가져오겠다!'  
경남고 '투수3총사' 이재곤 이상화 김대건(이상 2년)이 야구명문 모교의 '전국최강 신화'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부산의 고교야구 부활의 견인차로 떠올랐다.

서 올해는 설욕의 해가 될 것입니다"고 했다.  
우완 정통파인 이상화는 경남 중때부터 부산에서 '미래의 대어'로 점쳐졌던 투수였다.  
188cm, 90kg의 체격을 자랑



김대건 이재곤 이상화(왼쪽부터) 경남고 '투수3총사'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통파로 제구력과 경기 운영능력이 뛰어나다. 체격 또한 이상화급이다. 이번 전진훈련에서 볼스피드를 140km대로 향상시켰다.

이재곤은 오른손 사이드암. 191cm, 87kg의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면서 타자들이 공을 놓는 포인트를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대 강점이다. 초고교급 투수로 지목되고 있

지난 겨울 경남 남해군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지옥훈련을 하고 있는 모교 야구부 전의(戰意)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모교는 지난 2003년 봉황대기 우승 이후 04~05년 동안 4강에 오른 적이 없이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올해 모교 야구의 파죽지세(破竹之勢)를 예고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함포(艦砲)위력인 이재곤 이상화 김대건 3명의 전천후 투수가 전진배치되어 있어서다. 이들에 대해 전국 고교야구계는 이미 '대어 중대어'로 평가한 상태.

이중운 감독(39회)은 "지난 2년 동안의 불운은 선수들을 담금질하는 전기였습니다. 따라

하는 이상화는 정교한 컨트롤을 주무기로 부산지역에서 '랭킹 1위'의 위치를 굳혔다. 이상화는 전지훈련에서 체력 보강에 주력한 결과 기존의 좋은 제구력에 볼스피드를 140km대로 상승시켰다.

경남 창원 신월중 때 이미 경남지역 '랭킹 1위'에 오른 김대건은 이상화처럼 우완 정

는 이재곤은 최근 가진 대학팀들과의 연습경기에서 선배들도 그의 공에 속수무책일 정도로 강스피드를 자랑하고 있다.

타자들과 승부를 거는 과감성이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들 삼총사는 프로야구 롯데가 내년도 신인지명 대상으로 일찌감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은 재목들이다.

**이대호**(55회)  
사회복지단체 홍보대사 위촉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거포 이대호 동문(55회·사진)은 최근 지역의 사회복지단체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공동대표 손



명찬)의 첫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는 이 동문은 중앙기관의 인기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선례를 깬 지역의 첫 사례

를 기록했다.  
시즌 중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야구장으로 초대하고 시즌이 끝나면 불우이웃 위문활동과 팬사인회 등을 통해 기관 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의 여행

이영란

길을 떠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밖은 격전지  
수많은 전투에 휩싸입니다  
용맹한 무사  
언제나 이기고 돌아오기를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변엔 음모와 배신이 꼬리를 뭍니다  
그래도 그의 사려심은 처절한 이마처럼 빛납니다

저녁한때  
호랑나비가 날개를 칠 시간  
무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곳의 불빛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집은 언제나 기다림의 궁전입니다  
이제 그는 무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식구들에게 다정한 아버지며 지사입니다  
등잔을 둘러며 낮은 저녁을 들고  
그의 환한 모습에 모두들  
저마다의 꿈을 일구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숲향이 짙어 벌들이 흠뻑하는 시간  
그는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가만히 불러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그만이 아는 슬픔  
한낮의 용맹한 무사는  
잠시 목이 잠깁니다  
원천함이란 신기루를 소망함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실로 난 작은 인간인가  
먼지와 같은가  
티끌과 같은가  
어두운 침침 먹빛으로 잠겨서  
그는 또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스스로에게로 길을 떠나갔습니다



시인 이영란 님은 (사진) 전영조 제 23회 동기회장(남 일회계법인 대표 이사)의 부인이 다. 지난 2000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이 시인은 부산여고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래여고에서 후학을 지도했다.

###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121년 로마에서 태어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고 철학자였

다. 안으로는 페스트와 경제적 곤경이, 밖으로는 게르만족과의 전쟁 등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 중 도나우 강변의 진중(陣中)에서 병사했다. 그의 유명한 <명상록>은 이 진중에서 쓴 것으로, 철학자와 황제라는 두 모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모순 애조(哀調)를 담고 있다. 그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은 쇠퇴했고 이후 로마시에는 마르크스 안니우스를 부조(浮彫)한 기념주(紀念柱)와 그의 기마상(騎馬像)이 있다.

<5면에서 받음>

- 병원 정형외과 교수. 비행중 한강환경감시활동(조종사면허 소지)과 색소폰 연주가로도 활동중.
- 金在鳳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盧在胤 = 미국 휴스턴 코넬 대학교 부속병원 외과병리 Director 근무
- 文龍甲 = 꽃내마을 대표. 서울 양재동 소재. 017-320-5297
- 襄在昱 =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소재. 02-3482-0077 · 011-720-4595

### 제 18 회

- 姜大圓 = 부산시 남구 우암1동 25번지 자유아파트 102동 1505호. 051-645-7500
- 郭炳泰 =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웨딩의 전당 그랜드 볼룸에서 장녀 결혼
- 金大憲 = 신한방사선과의원장. 051-808-0400
- 金東會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대표. 051-247-0208
- 金武源 = 부산시 서구 암남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1호. 051-256-0578
- 金元泰 = 김원태세무회계사무소 소장. 051-241-0700

### 어디서 무엇을

- 金鍾琴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180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1205호. 051-291-3495
- 金俊吉 = 한양공업(주) 대표. 051-321-0005
- 金址浩 = 참스라인 대표. 051-316-3217
- 金弘大 = 지난해 11월 14일 모친 별세
- 馬鍾準 = 명산사료 대표. 052-264-8951
- 朴省鐵 = 박성철소아과의원

- 장. 051-581-3345
- 朴守元 = 행진식육점 대표. 051-866-4455
- 徐成德 =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새온천 화신공영아파트 103동 403호. 051-502-6548
- 徐在鳳 = (주)MSC 부사장. 055-389-1001
- 宋寅喆 = 춘해병원 산부인과 과장. 051-638-8000
- 安昌範 =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장. 051-850-8610
- 柳鍾又 = 부경대 건축과 교수. (자택 이사)부산시 남구 대연3동 93-3 대연푸르지오아파트 102동 203호
- 李圭容 =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상록회관 그랜드볼

- 룸에서 차남 결혼
- 張淵植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75-4번지. 051-758-0390
- 鄭起龍 = 지산고등학교 교사. 051-580-2650
- 鄭秀喆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센트럴시티 크리스탈홀에서 장남 결혼
- 千斗甲 = 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 黃光健 = 황소아과의원장. 051-254-9739

### 제 20 회

강병천 = 호명물산 회장.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양재 <7면에 계속>

<6면에서 받음>

동 은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장녀 주영양 결혼  
**金大業**= 지난해 12월11일 대전 대덕컨벤션타운 크리스탈볼룸에서 딸 결혼  
**金形洙**= 효성중공업(주) 상무. 지난해 10월15일 모친 별세  
**閔英基**=현대배관 대표. 지난해 12월17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아들 지훈군 결혼  
**朴源宰**=태양물산(주) 대표. 지난해 12월12일 모친 별세  
**余鋌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기획관리본부장. 지난해 11월12일 강원도 북평명 복지회관에서 막내 딸 원경양 결혼  
**鄭國錄**=EBS 이사.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센트럴웨딩 크리스탈홀 사파이어룸에서 장녀 효빈양 결혼  
**崔明顯**=파마테크 대표. 지난해 12월29일 서울 노보텔엠버서더호텔 샴페인홀에서 장녀 영인양 결혼  
**崔重慶**=아주공인증개사.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2가 378-1. 051-241-4748

제 21 외

**姜庚求**=우정병원장. 경남 마산시 소재. 011-308-8222 · 011-887-0187  
**姜炳己**=울산과학대학 교수. 052-230-0662 · 011-873-2775  
**姜三泰**=공무원 퇴직후 성도회계법인 상무로 근무. 051-460-4715 · 011-589-4513  
**金芝山**= 지난해 12월12일 부인 별세. 011-241-0017  
**金熙建**=1월6일 부인 별세. 017-226-1986  
**成正根**=동천고등학교 교사. 부산동기회 21신우회장. 작년 12월11일 영도중앙교회 장로장립됨. 051-628-1303 · 019-527-3619  
**吳巨敦**=해양수산부 장관. 1월15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06년 신년음악회 특별출연함.

**張浩**=장호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005호. 051-951-0202  
**韓大胤**=1월1일 현대중공업(주) 부사장 승진. 052-230-2054 · 011-9547-4100

제 22 외

**許範道**=산자부 차관보. 제 16회 시장경제대상(한국경제 주최) 아웃소싱서비스 대상 수상

제 23 외

**金煥麒**=동아산업(주) 대표이사. 신제품 오스카음식물처리기 제조판매중. 011-845-8483  
**張百基**=부산정보대학 건축과 교수. 011-836-7147  
**鄭幸得**=광운대 교수. 지난해 10월19일 장인 별세  
**蔡幸允**=한국계측대표. 011-595-7838  
**河鍾基**=하중기법무사사무소 대표. (자택 이사)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239 한일유엔아아파트 110동 602호  
**黃徹仁**= 지난해 11월19일 부인 별세  
**洪德杓**=제47회 사법고시에 자녀 홍지윤양이 최종합격. 011-563-8900

제 24 외

**梁在逸**=LG상사 부사장 · 모스크바 지사장. 지난해 12월22일 서울 리즈칼튼호텔에서 딸 서영양 결혼  
**曹太洪**=시드건축사무소 대표. 지난해 12월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녀 민정양 결혼

제 26 외

**金度亨**= 지난해 12월2일 국무총리표창 수상.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및 불채택운동에 관한 공적  
**김재수**= 지난해 11월15일 장인 별세  
**朴源世**= 한국케이블협회

제 34 외

**金哲弘**= 지난해 12월1일 부친 별세  
**裴鎬權**= 지난해 11월1일 모친 별세

제 35 외

**卞詳敦**= 지난해 10월26일 부친 별세  
**孫光鎬**= 지난해 10월18일 모친 별세  
**崔東根**= 지난해 11월 장모 별세  
**韓台永**= 지난해 10월17일 장인 별세



상근 부회장. 지난해 12월12일 모친 별세  
**尹鍾燮**= 지난해 12월7일 국제신문 서울지사장에서 편집국장으로 승진  
**鄭在永**= 재경동기회 신임 총무. 법무사 정재영사무소 대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7-4 현정빌딩 102호. 02-598-8160 · (FAX) 02-598-8165 · 011-1733-8160  
**玄東雨**= 재경동기회 신임 회장. (주)씨앤씨 부사장.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7-1 신양빌딩 405호. 02-443-0864 · (FAX) 02-443-0866 · 010-3013-3238

제 27 외

**金安石**= 지난해 11월 장인 별세.  
**柳英相**= 이비인후과 운영. 지난해 11월16일 장인 별세  
**李迎雨**= 변호사. 지난해 11월16일 부친 별세  
**허봉호**= 삼성캐피탈 상무. 지난해 11월8일 부친 별세

제 28 외

**김성희**= 부산동기회 신임 총무. 현대자동차 근무. 부산시 남구 용호동 160-2. 016-844-5732  
**金準培**= 부산동기회 신임 회장. 김준배치과의원장. 부산시 북구 덕천2동 400-7번지. 051-332-2800 · 019-334-2800  
**嚴載弘**= 부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월1일 부산시 치과의사회 고문회계사로 위촉. 051-803-4291 · 010-3030-0005  
**林在德**= (주)고려제강 유산공장장에서 본사 이사진급으로 영전



제 37 외

**朴鍾敏**= L.C.I 키즈클럽 외국어학원 · L.C.I 아카데미 중국유학원 대표. 부산시 남구 소재. 051-628-0365  
**白鎭守**= 월마트 상무. 지난해 12월5일 부친 별세  
**柳浩燮**= 부산동기회 전임회장. 구포하나정형신경외과의원장. 051-336-6119  
**張原翹**= (주)동남조경 대표이사. 051-893-6026

**奎在萬**= 외교부 기획심의관에서 3월에 중국 광저우 총영사로 부임예정  
**崔元培**= 로즈마리산부인과 소아과원장. (병원 이전 개원)부산시 남구 대연동 김범빌딩(제일은행 맞은편). 051-626-1009

제 29 외

**金大雄**= 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난해 11월29일 장인 별세  
**金弘記**= 삼일회계법인 부사장. 지난해 11월14일 모친 별세  
**南基平**= 지난해 11월30일 장인 별세  
**朴昌彦**=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장(부국장)  
**辛榮基**=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기획총괄팀장에서 이사관으로 승진  
**劉星基**= 소아과 운영. 지난해 10월6일 부친 별세  
**崔仁奎**= 피부비뇨기과 운영. 지난해 11월24일 부친 별세  
**韓承慶**= 지난해 10월13일 장인 별세

제 30 외

**權龍澤**= 동창한의원장. 부산 아미동 소재. 051-255-5588  
**金道先**= 대항병원 원장. 지난해 12월7일 장모 별세  
**金哲佑**= 지난해 12월1일 부친 별세  
**柳東憲**= 서담역학연구소. 051-804-2456 · 019-513-2456  
**俞在日**= 지난해 12월13일 장인 별세  
**李圭河**= 로즈마리산부인과 소아과의원 개업. 부산 대연동 소재. 051-646-3532  
**李浚星**=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으로 발령  
**張榮祚**= 녹수한의원장. 부산 범일동 소재. 051-645-8880  
**鄭富光**= 아레나(수영복) 부산총판 개업. 051-501-

6773 · 011-878-5750  
**丁承珍**= 정승진내과의원장. 부산 감전동 소재. 051-311-7575  
**鄭鍾龍**= 부친 별세  
**崔京林**=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자유무역협정제1교섭관(심의관)

제 31 외

**金光賢**= 미래공인증개사 대표.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374-1 향토빌딩 201호(동래구청 앞). 051-555-7726 ~ 7 · (FAX) 051-555-7728  
**金泰珠**= (주)코오롱 경영기획팀장(부장). 지난해 12월12일 상무보로 승진  
**南哲祐**= 한울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지난해 11월25일 개업.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303호. 051-505-7778 · (FAX) 051-505-7772  
**宋秉勳**= 육군 대령. 지난해 11월17일 대덕 육군지도장에서 연대장 취임  
**崔敬祐**= 지난해 11월8일 누나 별세  
**崔海永**= 롯데공인증개사 대표.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274-11번지(우리마트 입구). 051-262-8949 · (FAX) 051-261-8881

제 33 외

**김대현**= 푸르덴셜생명 영남 대리점. 051-642-9988 · 011-857-3235  
**南景部**= 부산동기회 삼솔회 신임회장. 011-579-2403  
**南勝勳**=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연구원(환경안전계측센터 강도평가그룹). 042-868-5383 · 010-3393-8600  
**閔丙鉉**= 부산동기회 33산우회 신임회장. 018-586-5404  
**朴容得**= (주)과워컴 창원서비스센터 대표. 055-252-2744 · 019-504-2800  
**朴亨建**= 삼성물산(주) 상사부분 미국변호사(뉴욕

주). 02-2145-2445 · 011-9271-3331  
**徐吉源**= 제일가스설비 대표. 051-418-4401 · 017-591-2271  
**尹泰雄**= (주)동일기술공사 이사(기계). 054-276-1791 · 011-223-1817  
**李載源**= 캡글로벌 포리우레탄 영업이사. 02-3463-3405 · 018-259-1421  
**鄭順富**= 경동유통 대표. 051-256-6660 · 010-9664-7965  
**黃喆**= (주)이캡프 대표이사. 02-2026-7377 · 019-292-7000  
**김태훈**=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1 · 010-4748-1442

제 34 외

**金哲弘**= 지난해 12월1일 부친 별세  
**裴鎬權**= 지난해 11월1일 모친 별세

제 35 외

**卞詳敦**= 지난해 10월26일 부친 별세  
**孫光鎬**= 지난해 10월18일 모친 별세  
**崔東根**= 지난해 11월 장모 별세  
**韓台永**= 지난해 10월17일 장인 별세

**奎在悅**= 재경동기회 총무. (주)청우웰딩 대표이사. 02-2682-8146  
**丁海昌**= 정해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051-245-0135  
**趙顯徹**= 부산동기회 회장. 용마트레이딩 대표(무역업). 051-263-3533  
**崔宰炯**= 대우증권 사상지점 부지점장. 051-325-9825

제 38 외

**裴哲皓**= 지난해 11월7일 모친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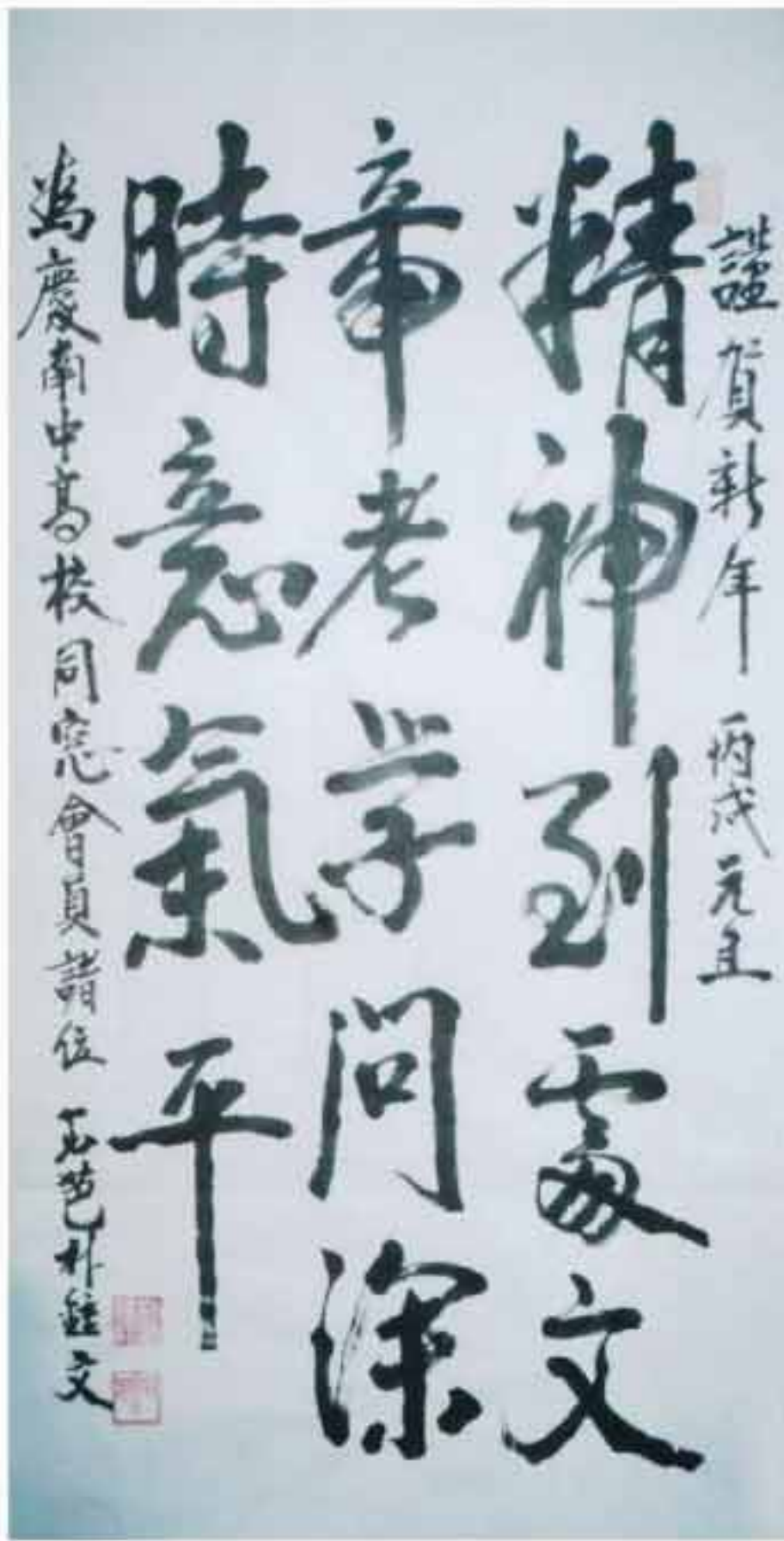
제 39 외

**鄭鎭勳**= 지난해 11월25일

장인 별세  
**제 41 외**  
**金燦源**=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장. 2월 중국 칭다오로 파견 예정  
**梁成旭**= 지난해 10월18일 부친 별세

제 45 외

**康志碩**= 금융감독원 근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금감원 대강당에서 결혼  
**朴 雄**= 경기 덕소에 경희예랑한의원 개원. 011-786-9329  
**朴勝來**= 지난해 12월7일 부친 별세.



# 산은 고통 · 갈등 껴안는 '어머니 품'

살며 사랑하며

신남식

(21회) 용마산악회 산행대장

산에 빠져드는 산꾼들을 보면 대체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외로워서 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산행에는 본디 외로움과 두려움, 고통이 뒤따른다. 그것들을 넘어설 때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갇히기를 즐겨한다. 산에는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산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 또한 이것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자질구레한 일상의 그물을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열심히 산을 오르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우리의 몸이 먼저 지쳐버린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의지나 정신력도 지쳐 문득 산을 내려가고 싶어진다.

악천후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산이 지겹고 무서워진다.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육신을 눕힌다. 그런데 마음은 호뭇하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나왔기에 스스로가 대견해진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온몸이 개운하다. 새로운 활력이 내 몸에 충전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산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산이 그리워진다. 그 지겹고 지긋지긋했던 산에서의 기억들이, 아름다

움으로 솟아올라 나를 유혹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마운틴 오르가즘'이라고 한다.

사람의 뜻과 생각을 맑게 하는 것이 산이다. 그래서 넓게 트인 산꼭대기에 올라 스스로의 웅중하고 어리석은 삶을 뒤우치게 된다. 높고 멀고 아득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산에 가기 어렵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그 산을 향해 오르다 보면, 그 산이 어느새 눈 앞에 있다. 땀 흘리며 허위단심 된비알을 오르다 보면, 그 높다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는가 보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할수록, 삶이 고통스

러울수록 산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 산꼭대기에 올라 자질구레하고 속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끝간 데 없이 아스라한 하늘금을 바라보며 우리의 번민을 저 흰구름에 풀어놓아야 한다.

용마산악회 동문 여러분! 올해에도 더욱 산을 가까이 하며 산에서 자주 만날 것을 기원한다.

이제 우리는 화합과 단결이 절실한 때이다. 사소한 이견(異見)과 분열의 굴레를 벗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산과 산행을 통해서 자신을 연마하고 대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 두 손을 힘차게 뻗고 우리의 기상을 펼쳐보일 때이다.



산은 뜻과 생각을 맑게 하고 활력이 나의 몸에 충전되게 한다. 삶이 고통스럽고 번뇌스러울수록 산에 올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사진은 본부 용마산악회 산우들이 새해를 맞아 '야호!'를 외치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 집념의 길 닦을 때 평안 총만

서예가 박종문(10회) 새해 휘호

서예가 석파(石芭) 박종문 동문(10회·사진)이 국내외 용마가족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새해 축하휘호를 보내왔다.



휘호의 원문은 '精神到處文章老(정신 도처문장로) 學問深時意氣平(학문심시의기평)'으로, '정신이 이르는 곳에 문장은 노련해지고 학문이 깊은 때에 의기가 평안하다는 뜻이다.'



## '끼'와 낭만 샘솟아 제36회 경고학예전 성황

경남고 제36회 학예전이 구람 16~17일 학교 원형관을 비롯해 국산기념관, 체육관 등에서 펼쳐졌다.

문화제는 매일 오후 2시30분부터 8시까지 원형관에서 열렸다. 2층에서는 도서전(주제 '책들이, 도서관에 놀러가자'-지도교사 이소영·부장 2-5 양진승)이, 3층에서는 미술전(주제 '내 마음 속의 풍경'-지도교사 양혜선·부장 2-1 송창수)이 각각 선을 보였다.

4층에서는 사진전(주제 '순간의 추억' 주제-지도교사 김이화·부장 2-4 하준형)과 미술전(주제 'Hidden Magic'-지도교사 강연화·부장 2-8 김재준), SFC(주제 '사랑을 꾸미는 SFC'-지도교사 우병녀·부장 2-9 박기성, 음악발표회(사진) 등이 열렸다.

행사 마지막날인 17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열린 공연 이벤트 중 SFC의 CCM·CCD 소공연(15:00~16:00)과 미술발표회(16:00~16:50)가 펼쳐졌다.

제19회 용마방송작품발표회(지도교사 박영만·부장 2-8 유순찬·17:00~20:00)는 국산 기념관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또 음악감상과 발표회를 겸한 제19회 고전과 낭만의 밤(지도교사 강민경·부장 1-1 장태수)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음악실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교내식당에서 열린 '먹고 보자' 코너에서 김박 덕북이 만두 라면 파전과 각종 음료수가 날개돋친 듯 팔렸다(지도교사 손양희 이상민·부장 2-7 이도행).

한편 앞서 행사 첫날인 16일 오후 3시 체육관에서는 학생회 자축행사인 용마대동제가 열려 장기자랑 등을 통해 '끼'를 한껏 발산시켰다.

클릭!! 클릭!!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 미국 한인 최대 부동산 회사 NEW STAR

- ◆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자문
- ◆ 미국 E-2 투자 이민 사업체 매매
- ◆ 주택·아파트·상업용 건물·상가 매매
- ◆ 투자용 빈 땅·투자개발 상담
- ◆ 골프장·호텔·리조트

NEW STAR REALTY & INVESTMENT



ERA NEW STAR REALTY & INVESTMENT  
LA MAIN OFFICE 3030 W. 8th ST, LA, CA 90004  
사무실 213-385-4989 / 핸드폰 213-215-6670  
http://chobungrae.newstarrealty.com  
e-mail: chobungrae@newstarrealty.com



조봉래(22회)  
캘리포니아 부동산국  
라이선스 NO. 01502963